

KC GREENHOLDINGS

2012 NEWS LETTER Vol. 39





사랑합니다
KC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Contents

KC NEWS ZINE

KC Monthly magazine

October 2012 vol.39



- 4 KC FFM
- 6 2012 하반기 신입사원
- 7 APC MEETING



- 8 전사원한마음교육
- 10 안성산악회 - 통영사랑도를 다녀오다, KCMS 용접기능사
- 11 2012 녹색성장 박람회LC UK본부 Serbia Reception
- 12 삼척그린파워 수주, POSCO 검정 자율관리사 선정



- 13 신입사원 소개
- 15 덴마크 GEA NIRO교육 출장보고
- 21 K-ONE인터뷰 - 기술연구소
- 26 APC 뒷이야기
- 30 39주년 특집기사



- 37 특집기사-여행칼럼 TELL US YOUR STORY
- 46 이달우회장 연재칼럼
- 47 언어한마디
- 48 QUIZ



우리는 신입사원입니다

2012하반기 KC신입사원

11월 개최되었던 FFM 에서는 이번 년도의 하반기 신입사원 소개도 이루어졌다.

관계사 전출발령으로 임원이동인사, 그리고 해외지사에서 본사로 발령 건 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동이 있었던 만큼 기대가 큰 하반기 새로운 얼굴을 소개한다.

대상

관계사 전출	이봉형
경력채용	염동균
신규채용	조우리아름
신규채용	박한아름
신규채용	류제욱
지사이동	허영길

발령 후

마이크로원 / 상무보
해외사업부 기술지원팀
발전민수사업부 영업팀
해외사업부 기술팀
제철사업부 기술팀
해외사업부 기술지원팀

KC코트렐 상무보
KC Vietnam

[안성유리공업] 2012년 전사원 한마음 교육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과 동료 및 조직에 대한 팀워크 형성을 위한 안성유리 한마음 연수가 2012년 10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재능교육 연수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3차간 진행되었습니다.

안성유리는 매년 경영환경에 맞는 주제를 선정,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합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열려라! 참우리!> 능력향상'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례와 동영상을 통하여, TRIZ의 차별화된 사고기법을 활용, 회사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모순에 대한 이상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를 제한했던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열린 조직의 의미를 깨달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이 안성유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TRIZ 창의적 기법 열공~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하나게임~



열려라! 참우리!



우측부터 1차~3차 단체 기념 사진

안성유리 그룹웨어 게시판에서...

마지막 3차 1박2일 한마음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제조 김정욱 님]

마지막 3차 1박 2일 한마음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현장 생활에 어디 한번 제대로 숨 돌릴 곳 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주변 동료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준 관리부서에 감사 드리고 열성적인 여사원께 감사 드려요.

많은 관심과 배려로 다독여주신 간부님께 감사 드립니다.아직 오래되진 않았지만 즐거움을, 웃음으로 같이해주신 사원들도 좋았고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현업을 떠나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 속에서 유익함을 배우고 활용함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또 현업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하지만 동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가식 없는 언행으로 내 자신이 나태하지 않게 잘 지내길 나에게 다짐합니다.

오늘 가을 단풍이 좋았습니다. 추워지겠죠 ?

그만큼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좋은 회사. 안성유리로 발전합시다. 화이팅!



이석구 2012-10-29 08:25:33 112.222.255.xxx

좋은 말씀의 교육 후기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았던 지원팀의 박인환 과장,홍세라 주임, 김찬희씨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우 여러분들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선영 2012-10-30 08:50:29 112.222.255.xxx

4조 조장님 정옥씨, 3차 한마음 교육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 모범적 이셨습니다.

또한 교육 중 주변을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정옥씨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

이번 교육에서 우리들은 첫째 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TRIZ 교육에서 "생산현장에서 생겨나는 모순과 문제를 다르게 이해하려는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를 배웠고, 둘째 날 교육을 통하여 안성유리 가족이 서로간 마음이 교류되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힘이 쭉 ~ 커지는 느낌 입니다. 이렇게 이번 교육은 안성유리 식구들이 역량도 키우고 모두 하나가 되는 진짜로 한마음 교육이 되었네요.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유리 파이팅 ~ !!!

강성백 2012-10-29 16:26:57 112.222.255.xxx

매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후기까지 작성해주시는 열성에 늘 감사드립니다.

동업계를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전사원이 매년 함께하는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마음 교육을 통하여 서로가 이해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회사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이 높아짐은 물론이고,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회사 경쟁력과 이익이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안성유리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유리 화 ~ 이 ~ 텅 ^^)

안성유리공업]

안성산악회 — 통영 사랑도를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안성산악회 총무 김순오입니다.

지난 11월 3일 안성유리 정기산행 통영 사랑도를 다녀왔습니다.

회사에서 04시 출발하여 산청 휴게소에서 조식 후 통영 선착장에 09시 도착하여 사랑호 승선 후 A팀(6시간 산행) 10명, B팀(3.5시간) 11명 산행을 시작하여 13시경 점심식사 후 16시 하산하였습니다.

지칠만하면 산봉우리에 새로이 나타나는 풍경과 좋은 산행 벗들로 인해 장시간의 버스투어 피로를 잊게 해준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통영시장에 도착하여 어시장에 있는 고기 중 가장 큰놈으로 광어와 준비하여 부족함 없이 풍족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19시경 출발하여 23시에 천안에 무사히 도착 후 해산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석구 상무님과 연락 드리자마자 흔쾌히 참석해주신 이봉형 상무님, 이상헌 산악회고문님, 또한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해주신 전찬용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3년 봄에는 아름다운 철쭉산행을 오전7시경 출발하는 것으로 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KCMS 용접기능장 취득

KCMS 생산팀 홍덕기반장과 원유섭직장이 52회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여 용접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다. 기능장은 기술기능분야 종사 인력을 기술 수준별로 분류할 때 해당 분야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해당 직무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에 종사해야 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써 KCMS에는 51회 임재규 직장의 용접기능장 취득에 이어 3명의 용접기능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2012 APC MEETING

KC APC CONFERENCE

10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KC의 대행사인 APC MEETING이 KC 본사에서 개최되었다. KC 그린홀딩스는 총 9개의 해외지사 및 해외관계사를 갖추고 있다. APC회의에는 각 해외 법인장 외의 해외 관계사 임원이 총 참여하여 올 한 해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대축제다. 이번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KCUS

Richard

Staehle

Chris Roglieri

Wayne

Navickas

Mike Widico

KCCN

차순근

KCVN

오인석

NTS

Wayne

johnson

Rger Schmits

Vernon

Hudalla

David Van

Arnam

KCTW

최희규

LCIN

이태준

KCFS

Yan Lunjie

YU Zhouping

NTE

Favio Novelli

박승원

금화수

LC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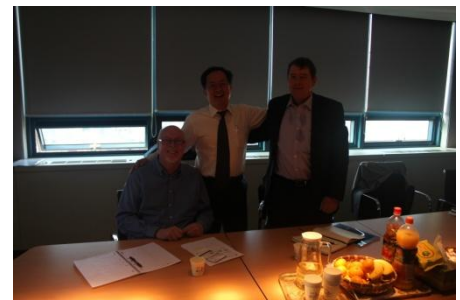
Sean Kim

Kevin

Bridgewater

24일은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새롭게 있었던 교육과 R&D 소개가 이루어졌고 25일부터 2013 사업계획과 사업목표전략을 위해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간과 다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올해 또한 신규고객 확보와 신기술 적용은 우리 Kc의 큰 과제로 남았다. 특히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주주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향에 대한 모색과 네트워크를 결속 짓는 방향으로 법인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불황까지 겹쳐져, 설부른 판단과 결정이 조심스럽다. 2012년의 사업실적을 두고 각 부서 및 법인장들은 2013년의 사업운곽을 잡고 정확한 확립을 미뤄 필요한 손실에 대비하였다.

	22-Oct MON	24-Oct WED	25-Oct THU	26-Oct FRI
6:00				
7:00				
8:00				
9:00				
10:00		T5-BO D/KCU S	T11-tu fanveill y	
11:00				
12:00	ARRIV AL	Long b T6-BOD/ ag NTS	T7-KCKR DIVISION	T9-GLO BAL AP C
13:00				
14:00		T13-KM Intro duction	T12- T14-R&D Intro duction	T10-POSC O/HADON G
15:00			T15-법인 자 KMS	
16:00			T8-NAT O	
17:00				
18:00				
19:00				
20:00	MO-D Inner	M3-Dinner	M4-Dinner	
21:00				



KC 11월 FMM

- 김종열 감사

첫 달의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KC 자체 월례행사인 이달 FMM은 지난 11월 5일, 김종열 감사 진행 하에 본사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그의 강연에서는 K-ONE이 화두에 올랐다. 올 초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경영시스템인 K-ONE은 본사에서부터 실행되었으며 직원들의 참여로 순조롭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82개의 cop, 16개의 Gcop, 241개의 프로젝트 룸으로 총 339개의 Kc 블로그인 cop가 개설되어 활동 중이다. 이 중 실질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회사차원의 COP는 눈에 띄지 않는다.

전반적인 cop는 단순한 정보공유 차원의 게시판일 뿐, 조직자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식경영활동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지식경영활동의 성공사례로는 POSCO건설의 POKINS가 제시되었다. POSCO 지식경영활동에서 두드러진 점은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목표활동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평가 내의 평가 기준과 '지식'구분이 명확하다. 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는 각 부서의 리더배치로 개인별 그리고 부서별 보상을 적용시켰다. K-ONE의 전체적인 참여율이 이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다. 결국 가치 있는 지식을 빠르게 서로가 소유할 수 있을 때까지가 아닐까.



POSCO 지식경영 5년, “업무처리속도 32% 향상”

이투데이 성현희 기자 2008년 기사발췌

포스코가 지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5년 만에 업무 처리속도가 32% 이상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윤동준 경영혁신실 상무는 지난 18일 청와대 경호처에서 열린 지식혁신위원회 특별강연에서 “기존에는 업무가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를 찾아 필요 지식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KMs와 CoP를 활용해 관련 지식을 조사함에 따라 업무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포스코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CoP를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등 스스로 학습하고 끈임없이 혁신하는 지식근로자를 육성하는 조직문화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윤 상무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직원들의 필요지식 입수경로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2년에는 직장동료를 통해 필요지식을 입수하는 경로가 40%에 달했다면 올해는 24%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지식통합관리시스템이나 학습동아리를 통해 필요지식을 입수하는 비중이 지난 2002년 29%에서 올해 72%로 크게 올랐다. 포스코의 전체 직원은 1만7400여명, 이중 하루 KMS 이용자수는 평균 6899여명, 지식 등록은 300건, 지식 활용건수는 하루 5만8000건에 이른다. 즉,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9건의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연령이 45세에 생산직 노동자가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런 지식경영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다. 여기에 하루 4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하지만 포스코 직원 40%는 이미 정보 처리관련 국가 공인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포스코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노트북을 선물로 지원해주면서 전체적인 학습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때문에 KMS를 활용하고 CoP를 온라인 방식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개선하는데 전 직원들이 큰 어려움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포스코의 지식경영체계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바로 CoP 기반의 포스코형 QSS(Quick Six Sigma)다.

OSS의 경우 전 직원이 참여해 업무 조직과 CoP가 공존하는 지식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 사항을 도출해내고, 이를 CoP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지식기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의 작년 한해 혁신 과제 수행건수는 13만5000건이다. 1인당 8건, CoP 당 110건을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발휘했다. 윤동준 상무는 “초기 KM운영시 조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현금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직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지식의 질적 수준은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에 2004년부터는 조회 마일리지를 축소하고 우수 지식에 가점을 부여하면서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현재 5.0 만점에 4.0미만이지만 4.0이상의 우수 지식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니인터뷰-윤동준 포스코 상무

“같은 종자를 가진 비단잉어인데도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평균 8cm정도 자라고, 저수지에서는 25cm까지 크다. 하지만 큰 강에서 생활하면 1m20cm까지 자란다. 생활 환경에 따라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운영하는 조직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인재더라도 역량 발휘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포스코에서 지식경영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윤동준 포스코 상무의 철학은 간단하다. 기업이 업무환경을 잘 갖춰줄 수록 구성원들의 사고 폭과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상무는 포스코가 대표적인 지식경영벤치마킹 사례로 꼽힐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영진의 지원과 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현장 경영을 중요시하는 포스코의 경영 방침에 따라 수시로 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지만 이 외에도 CoP 등에서의 댓글 참여나 현장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 부여 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3년부터 국내의 190개의 기관과 기업에서 포스코를 방문해 벤치 마킹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혁신 의지가 식어버린다. 혁신의 반대말은 ‘시늉내기’다. 일과 혁신, 학습의 체질화를 통해 기업이 제로 성장 시기에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KMS와 CoP를 완전한 조직 문화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POKINS(Posco Knowledge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

전사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KMS와 EDMS를 오픈 열린 광장을 통해 신뢰 문화를 촉진, 지속적으로 지식의 상향 표준화가 가능하며, 지식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KMS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형성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도록 촉진 학습동아리는 200여 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3000여명이 넘게 참여 학습동아리는 지식 종합화 학습동아리, 정보교류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학습동아리 등 크게 3가지



안성유리공업]

안성산악회 — 통영 사랑도를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안성산악회 총무 김순오입니다.

지난 11월 3일 안성유리 정기산행 통영 사랑도를 다녀왔습니다.

회사에서 04시 출발하여 산청 휴게소에서 조식 후 통영 선착장에 09시 도착하여 사랑호 승선 후 A팀(6시간 산행) 10명, B팀(3.5시간) 11명 산행을 시작하여 13시경 점심식사 후 16시 하산하였습니다.

지칠만하면 산봉우리에 새로이 나타나는 풍경과 좋은 산행 벗들로 인해 장시간의 버스투어 피로를 잊게 해준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통영시장에 도착하여 어시장에 있는 고기 중 가장 큰놈으로 광어와 준비하여 부족함 없이 풍족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19시경 출발하여 23시에 천안에 무사히 도착 후 해산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석구 상무님과 연락 드리자마자 흔쾌히 참석해주신 이봉형 상무님, 이상헌 산악회고문님, 또한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해주신 전찬용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3년 봄에는 아름다운 철쭉산행을 오전7시경 출발하는 것으로 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KCMS 용접기능장 취득

KCMS 생산팀 홍덕기반장과 원유섭직장이 52회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여 용접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다. 기능장은 기술기능분야 종사 인력을 기술 수준별로 분류할 때 해당 분야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해당 직무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에 종사해야 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써 KCMS에는 51회 임재규 직장의 용접기능장 취득에 이어 3명의 용접기능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녹색성장 박람회 2012

KC코트렐

10.30(화)~11.2(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2012가 개최 되었다. 국·내외 대표 녹색기업들의 우수 녹색제품, 기술, 서비스를 전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세미나, 체험행사,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우리 KC코트렐은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 10대 기업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0개 기업 1,500개 이상의 부스가 자리한 이번 박람회 에서 우리회사의 주요 기술 및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외 환경 부문 바이어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KC코트렐(주)는 2012년 7월 5일부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대표 10대 기업 과 나란히 각종 박람회 및 보도자료로 소개되어 지고 있다.



KC코트렐(주)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수주

KC 발전민수사업부

KC코트렐(주)는 지난 2012년 10월 25일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전기집진기를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 수주하였다. 총 금액은 538억원으로 향후 일정은 한국남부건설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KC코트렐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발전민수사업부가 올해 계획했던 수주공사 중 하나였던 것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수주기념회식사진

KC코트렐(주) POSCO 검정 자율관리 공급사 선정

연속4회 선정 -KC코트렐(주)

KC코트렐(주)는 올해도 또한 POSCO 검정 자율관리 공급사로 선정되었다.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는 포스코에서 선정하는 중소 우수 제작사로, 인증 후 1년간 포스코에 설비공급 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한 검사를 면제 받는다. 이번에 인증된 업체는 KC코트렐, 보영RTC, 태인시스템, 한국플렉스산업, 케이시시정공, 덕지산업, 동양특수주강, 삼성플렉스, 삼우에코 등 9개사다. 포스코는 400여개에 이르는 설비공급사 중 검정 지적률이 0.5% 이하인 우수 공급사를 인증후보로 정해 현장 실사팀이 설비제작 공장을 직접 방문, 품질관리실태를 평가했으며 포스코는 지난 2009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설비공급사에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왔다. 이를 통해 검사 대기시간 단축, 검사인원 절감 등의 효과를 봤다. KC코트렐(주)은 올해로 POSCO 선정 연속 4회 기쁨을 누렸다.

(우) 수상하는 정순호 상무





발전민수사업부 영영님 조우리아름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이제 막 한달 지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밖에 안돼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거
겠죠?ㅋㅋㅋ
앞으로 저만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팀의 화력소가 되고 싶어요!! ^^



신입병아리 여러분 ~ 반가워요

2004년 12월1일 KC China에 입사하여 벌써 8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집진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신출내기에서 현재 동료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와 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며 또한 저의 업무능력을 보다 탄탄하게 하고 더욱 발전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본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환경분야의 고수이자 글로벌인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이 열정과 도전정신을 통하여 KC코트렐이 세계환경분야의 최고의 Global Leader가 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9월에 입사한 해외사업부 박한아름 사원입니다. 우선 KC Cottrell에 입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입사는 그전까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해외사업부의 업무처리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팀원을 열심히 돕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훌륭한 회사에 들어온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제 자신을 많이 발전 시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주세요~. ^ 감사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지구환경을 지키는 글로벌 리더인 KC코트렐출근한지 2달이 되어간다.

지난 11월 5일(월) FMM에서는 KC가족들과 정겨운 첫 인사도 했다. 그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생소함 보다는 친근감이 더 느껴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졌나 생각해 보면서 KC코트렐의 기업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한국기업의 평균수명을 보면 10년에서 12년,
미국기업의 평균수명의 경우는 15년 전후,
세계기업의 평균수명은 13년 정도이며,
포천선정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은 40년이라고 한다.

KC코트렐도 내년이면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과 비슷한 40년이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동양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가족과 같은 편안함, 수평적인 사고, 형식에 구애 없이 없는 자유로운 등이 KC코트렐의 기업문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 혁신과 창의성이 가미된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40년은 더 풍요로울 거 같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경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동질의 기업문화가 국내외 관계사 모두에게 전파되어 하나의 문화로 녹아 나야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KC코트렐 리더그 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내가 가진 조그마한 힘이 라도 보태고 싶다. KC 그린홀딩스 파이팅~!!

KC 코트렐 이봉형 상무

첫 직장생활은 아니지만 바뀐 환경과 사람들, 분위기에 조금은 낯선 감이 느껴졌지만 친근히 대해주시는 부서 분들 덕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이 분당이라 출퇴근에 걱정 이 되기도 했으나 조금은 익숙해지고 자유롭고 편안한 사내분위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퇴근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설비들에 그리 생소하진 않지만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 들이 넘쳐나기에 열심히 습득하여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철사업부 류제욱 사원



GEA NIRO 2nd Training Course In Denmark

출장보고서 - GEA NIRO 교육을 다녀오면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전민수사업부의 김용범 선임, 한동우 선임, 하정표 대리, 김준형 대리, 문연남 사원 그리고 조훈상 사원은 덴마크 GEA NIRO 교육 차 덴마크 출장을 다녀왔다.

10월 7 일 : 출국 및 덴마크 도착

KC 코트렐 입사 후 처음으로 갖은 해외 출장이어서 무척 설렘을 안고 출발을 하였다. 더욱이 우리의 목적지인 덴마크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이어서 더욱더 설렜던 것 같다. 또한 왜 자꾸 머릿속에는 우유만 생각 나는지... 아무튼 이러한 생각을 잠시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 비행기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덴마크로 도착하는 일정이었으며, 총 덴마크에 입국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비행기 경유시간을 포함하여 이동 시간은 총 14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다. 비행기로 이동 중 당황스러웠던 사건이 있었는데, 러시아 공항에 비행기가 안착 후 곳곳에서 박수 소리 및 함성이 들려 주위를 쳐다 보니, 비행기 안의 러시아 분들이 행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후에 알아보니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행기 안착 후 박수를 친다고 한다. 후에 알아보니 승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를 친다고 한다. 참 의아해 했지만, 그것도 잠시 있고 곧바로 비행기를 내려 환승하여 목적지인 덴마크 행 비행기를 2시간의 비행 시간을 거쳐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 할 수 있었다.



<GEA NIRO 2nd TRAINING COURSE 일정 소개>

10월 8일 : GEA NIRO 교육 (1일차) (ATOMIZER 교육 & ATOMIZER ASSEMBLY SHOP 방문)

첫날은 이 세션을 주관하는 각 담당자들과의 가벼운 인사로 시작하였으며, 전반적으로 GEA Niro 건물 내부 모습 및 기타 사무 환경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첫 수업으로는 반건식 탈황설비에 중요한 기기 중 하나인 Atomizer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Atomizer의 분사 용량에 따라 모델을 달리 구분 지어 놓았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델은 35,100,350,800 이며, 현재 1000 시리즈의 모델도 제작 납품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능시험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다고 한다. [상기 모델은 금년도에 중국에서 성능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함.]

오전에 교육을 마치고 GEA NIRO ATOMIZER제작 공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상기 위치는 GEA NIRO 본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내부에는 ATOMIZER 2대 정도가 조립 상태에 있었으며, 공장 내부는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장 이곳 저곳의 TEST 설비를 보고, 관련 제작 공정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쳤다.

10월 9일 : GEA NIRO 교육 (2일차) (ABSORBER DESIGN & ATOMIZER 교육)

교육 2일차 오전에는 반건식 탈황설비의 Absorber Basic Design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후반부에는 Atomizer의 교육으로 하였다. 아울러 상기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Q/A시간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교육 되었던 사항들에 관하여 의문점을 풀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GEA NIRO 본사 뒤편에 위치한 ATOMIZER 제작 공장 및 TEST LABS>



10월 10일 : GEA NIRO 교육 (3일차) (SIEMENS MOTOR & CABLE CONNECTION 교육)

오전 교육은 SIEMENS의 Motor 담당자가 Atomizer의 사용되는 모터에 관해서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추가적으로 독일 SIEMENS의 모터 공장의 생산능력 및 Test설비에 관하여 말해주었다. 오후에는 Cable Connection 관련하여 Pfister업체에서 Cable Connection tool에 대하여 교육 및 이야기가 나누었으며 전반적인 이야기는 우리 설비에 적용하기에는 그닥 우리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이런 설비도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10월 11일 : GEA NIRO 교육 (4일차) -SDA Tour
(Fynsværket Coal Fired Power Station 방문 및
Czech 이동)

4일차 부터는 반건식 탈황설비인 Atomizer설비가 실제 적용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기 기기 및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대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문제점을 확인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며, 상기 교육 시간 중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상기 방문 현장 중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Denmark의 민영 발전 업체인 Fynsværket Coal Fired Power Station을 방문하였으며, 상기 500mw coal power station과 쓰레기 소각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기 Atomizer의 기자재가 운영되는 설비는 쓰레기 소각로 설비에 적용되고 있었으며, 쓰레기 설비에 운영되고 있는 설비 중 Atomizer 3 set + Absorber 3 set을 기본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상기 설비는 Absorber Design은 Roof Gas Disperser type으로 행하여 지고 있었으며, 모델은 Atomizer 100 모델을 적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KC코트렐이 이와 비슷한 설비가 적용된 프로젝트를 찾아본 결과 고양시 쓰레기 소각로 설비에도 동일한 설비가 적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기 견학을 마치고, 우리는 Czech Prague로 이동하기 위해 서둘러 Denmark Copenhagen 국제 공항으로 이동하여 서둘러 비행기에 탑승하여 2시간 가량을 이동하여 Czech Prague공항에 도착 할 수 있었다.



<Fynsværket Coal Fired Power Station 입구>



<Absorber 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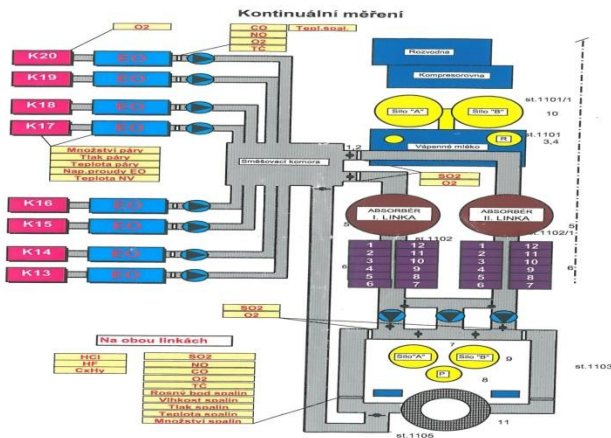


<Atomizer 장착 사진>

10월 12일 : GEA NIRO 교육 (5일차) -SDA Tour (Litvinov Power Staion 방문)

마지막으로 Czech의 대표적인 민영 발전사라고 들은 Litvinov Power Staion을 방문하였다. Czech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약 2시간 정도 달린 끝에 목적지에 도착 하였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국내 발전소 설치 위치와 다른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국내 대부분 coal power station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음.) 조금 낯선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상기 발전소의 원료는 기차를 이용하여 조달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발전소 내부에 수많은 기차들이 정차해 있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상기 발전소 내부에 Atomizer의 설비의 구성이 조금 독특하였으며 설비 중 사용되어지는 4대의 보일러를 1대의 absorber를 이용하여 탈황이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풍량 조절은 후단부에 위치한 Axial Fan을 이용하여, 풍량 및 압력을 조절하고 있었다. 아울러 보일러의 1대의 성능은 대략적으로 125mw의 풍량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은 연속운전의 개념이 아닌 필요에 따라 보일러의 운영을 간헐적으로 동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처리 가스량이 높아짐에 따라 Atomizer 기기 또한 Denmark에서 보았던 설비보다 더 큰 기기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상기 적용 모델은 800 시리즈 적용). Absorber의 풍량 분배 방식은 Denmark에서 적용된 Roof Gas Dispenser뿐 아니라

Central Gas Dispenser의 설비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처리 가스량의 증가에 따라 더스트량도 같이 증가함으로 이에 따라 Roof gas Dispenser내의 더스트에 의한 guide vain 마모 증가 및 풍량의 이상적 배분이 이루어 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 하기 위해 Absorber의 Design의 적용을 위와 같이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특히 한 점은 상기 Axial Fan의 운영 방법이 특이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Axial Fan의 구동은 Electric Motor에 의해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나 현 Power Station의 경우는 고압 Steam 을 이용하여 Axial Fan을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일반적인 발전소의 경우 Steam이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상기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또한 국내에 설치되는 설비 중 Bag Filter Hopper의 경우 일반적으로 Hopper 내부에 Dust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Vibrator+ Electric Tracing or Steam Tracing 을 설치하나, 상기 발전소에서는 Vibrator를 제외한 Electric Tracing만을 설치하여 보온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여 의아해 했지만 현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무런 Hopper 출구 및 내부 벽의 막힘 및 퇴적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국내 설비와는 사뭇 다른 것 중에 하나였다. 추 후 프로젝트에 반영될 사항이 아닌가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SEMI-DRY FGD FLOW DIAGRAM>



<Atomizer 800 Model>



<High Pressure Steam으로 동작하는 Axial Fan>



<BAG FILTER HOPPER>

10월 13~14일 : 귀국

Czech민영 발전사 견학을 끝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가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야만 했다. 여기서 잠시 비행기 대기시간이 약 5시간 정도 남아 독일 시내를 돌아 보자 하였고, 독일의 대중 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하여 시내 유명 관광지인 Romer 광장으로 향했다. 그 변화가에서 우리는 독일의 대표 음식인 생맥주 및 소시지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즐길 수 있었으며, 한 두 시간의 대화를 서로 주고 받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약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상카페에는 많은 인파들이 가득하였으며, 이렇게 저희는 어느새 독일의 분위기에 취해져 갔을 무렵 어느새 비행기 시간이 되어 서둘러 공항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돌아 오는 비행기는 A380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우는 항공기, 최대 800명 까지 탑승 가능하다고 함)을 타고 귀국 하였는데 비행기가 어찌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으며, 오는 비행기 내내 편하게 올 수 있었으나 한가지 아쉬움 점은 만석이어서 그렇게 큰 비행기 내에서도 화장실을 줄 서서 기다리는 행복한 고통은 어찌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독일 프랑크 푸르트 ROMER 광장에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연구하는 곳,
KC Cottrell 기술연구소

우리의 K-ONE에는 팀을 위한 배려와 이해가 있다

이 달의 K-ONE 우수 사용팀 기술연구소.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적극적으로
K-ONE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업무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기술연구소.

홍정희 팀장

업무 중에 취득하는 업무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막상 공유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K-One 이전에 업무 지식 공유 톨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4~2005년에 Team plus라는 지식 공유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많이 올리는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그 때 시스템이

왜 지속성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시스템의 편의성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보다 더 주요한 이유는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꼭 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때에는 환경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도의 경쟁 체제에 놓여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술연구소의 업무는 CoP에서 이루어 진다

국외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리고 발전소 시장에서도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식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절실한 필요성에 의하여 출범된 지식 경영 K-ONE을 보다 잘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연구소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였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합의 도출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처음 K-ONE의 사용을 일반화하기 위한 자체 회의에서 먼저 대두된 것은 도저히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료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자료를 검색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생기는 업무를 일일이 이 시스템에 등록해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점보다는 불편한 점이 먼저 다가왔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할 수 있었으나, 일단은 2주일 동안 사용해 보고 그러고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새롭게 건의해 보자는 선에서 첫 번째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첫 번째 보다는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었고 몇 가지 불편한 점과 업무상 사용 정책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지식경영팀의 배척이 있었기에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다.

일단,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연구소에서의 K-ONE사용이 일반화된 기본 바탕이 된 것이다.



연구소 워크샵에서 K-ONE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료 이관 시작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간단했다.

그 동안 연구소 서버에 있었던 자료들을 K-ONE으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행하였고, 또 e-mail로 하던 자료 교환 업무를 COP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제안이나, 토론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K-ONE을 사용하였다. 기술연구소 하반기 워크숍은 지식경영팀과 함께 하였는데, 이 때에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등에 대하여 제안하여 좀 수동적인 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K-ONE을 바꾸어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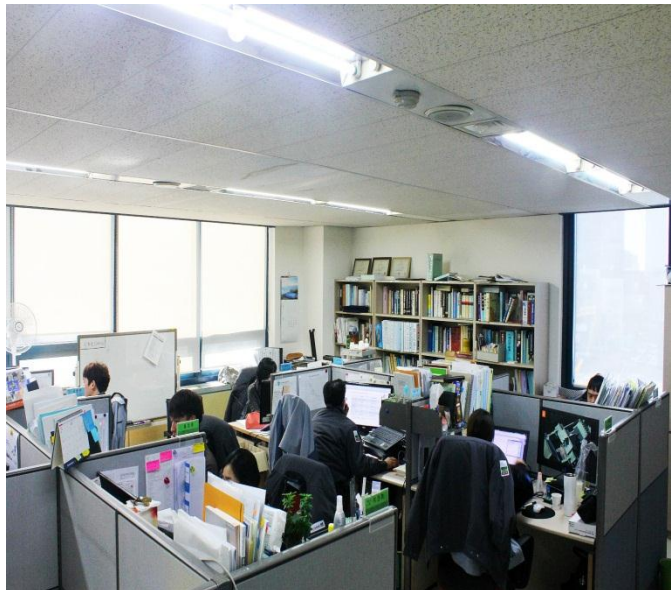
우리만의 CoP 만들기

또한 연구소 COP도 기존에 사용하던 형식을 바꾸어 실제로 우리에게 좀 더 적절하고 알아보기 쉽게 구조를 변경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사용 의지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계약이 되고 동시에 COP가 형성되며, 그에 따라 자동으로 메뉴가 결정되어 운영이 되지만, 연구소는 일반 COP를 변형하여 프로젝트 COP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연구소 팀원들 스스로 표준 운영 폴더 구조를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데에 합의를 하여 지금은 별 저항 없이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히 K-ONE이 업무에 녹아 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회사의 지식경영과 K-ONE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COP의 운영보다는 지식은행이 잘 정립되어야 지식 경영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COP는 회사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는 기본 툴로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익숙해진 후에는 최소한의 관리만으로도 활성화되는 데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은행은 강제성이 없이, 업무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만큼의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각 개인들의 지식은행 참여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 등록자들도 아직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극히 일부분만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보다 오히려 지식 등록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초기에는 지식 등록 횟수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지식의 질이 올라가면서 횟수는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TF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식 공유에 대하여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 냉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Let's share knowledge

또한 올라오는 지식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추진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제출하거나, 받은 자료들로서 일반적인 사용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서들을 조금 변형하여 일반적인 설명 및 계산 자료로써 바꾼 후에 지식은행에 올려놓는다면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을 텐데도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는 문서가 그리 많지 않다. 좀 더 나아가 다른 사용자들을 위하여 편집 가능한 형태의 문서로 올렸으면 하는 바이다. 어떤 지식들은 MS Word, PPT, Excel등의 편집 가능한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PDF로 바꾸어 올려놓은 문서들이 있다. 특정 날짜와 특정 프로젝트 이름까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문서는 읽어보고 참고는 하겠지만,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 가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이는 지식 경영의 축을 이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K-ONE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리고 지식을 공유해 나가려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지식 관리 정책에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일단 많은 지식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여 지식의 질보다는 건수로 평가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지식의 질 평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현재 지식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전문가와 사용자의 평점 주기가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인의 마음에 따라 1~5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기준 하에 평점 주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으로는 외부 지식과의 차별성 여부, 정보의 유용성, 정보취득 난이도, 정보의 계속성, 전문성, 범용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 외에 지식 관리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대한 인센티브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내 직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가능한 정도의 적절한 보상 인지, 그리고 비적극적인 사람에 대한 불이익 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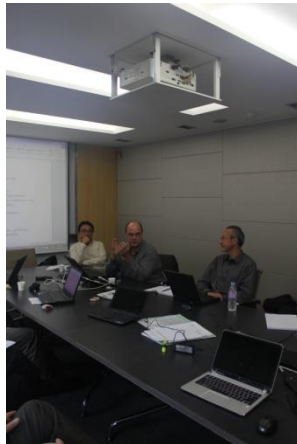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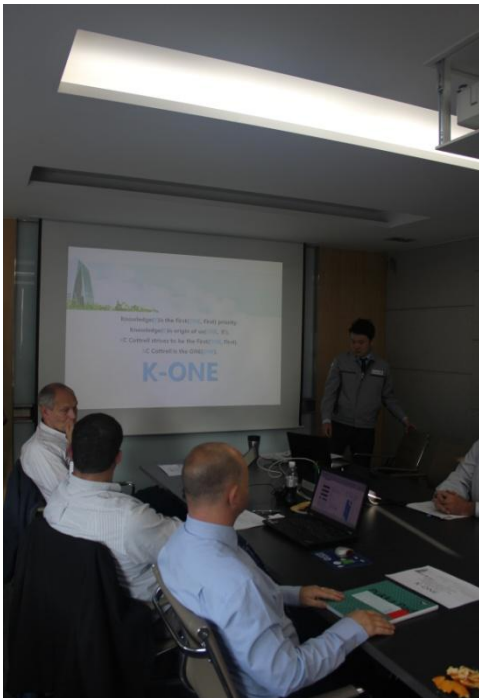
지금까지 K-ONE이 KC Cottrell의 지식경영의 지식 경영의 밑받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자 적어보았다. 내가 위에 적은 의견들이 읽는 사람에 따라 다소 동의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의견으로만 받아 주면 고맙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항상 지식 경영팀이 회사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무진장 노력한다는 것을 같은 사무실에서 직접 보고 느낀다. 아무도 안 걸어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고 겁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나 하는 것 같은 용감한 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 글을 마치는 바이다.

2012 APC MEETING

— 뒷이야기를 담아서.

지난 24일, KC 본사에서는 여러 각국의 귀빈을 모시기에 바빴다. 한 해의 총결산이 들어가야 하는 연말시즌, 바로 해외지사 법인장들을 모아 APC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비즈니스로 한국을 몇 번 오가며 마주한 얼굴인데도 우린 KC 가족이어서일가 무척이나 반갑다. 안성공장을 방문하고 그 동안의 변화무쌍했던 소식을 접했다.



9시간 풀 가동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1일,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요즘 핫 이슈인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기를 TY가 제안했다. 말춤을 따라 추자고 하는 이들.. 아까의 무서운 눈빛으로 신랄한 토론을 버린 그들이 맞는가 싸이 미국성공진출 요인으로 ENERGY라 주저 없이 답했던 David의 답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발전민수 수주기념 회식이 있던 날, 한국식 족발을 맛보고 축하하러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다. 더러는 소주가 이제 익숙하다며 먹는 이도 이렇게 부어라 마שר라는 왜 그러는거냐며 묻는 이도 있다. 그래도 한국식 축하파티를 공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재미있고 값진 경험이라 이구동성 외친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
자리에 참석하여 준비하시는
KC아시아 책임자들
차순근 오인석
최희규 이태준 법인장님

올 한해도 그렇게 짧고 깊은 APC행사가 지나갔다.
이들은 가장 값비싼 얼굴을 하고 있다. 1년에 한번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더 그렇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해를 기약해본다.



▼ KCUS/NTS 경복궁 투어



◀ 마지막날 APC 회식에서





Over the past year, a lot has happened in the U.S. operation ("KCUS"). Early in 2012, the name of Lodge Cottrell Inc. was officially changed to KC Cottrell Inc., even though the respected and well-known brand name of Lodge Cottrell is still used by us for some existing customers. This name change better aligns us with KCGH in our customer's eyes as we grow towards big project work in the future. Also, over the past year we officially opened a new office in New Jersey from which we will grow the business for large projects, while our HQ in Texas remains the center for after-market parts and services.

Some of the most exciting news is about the high quality of new people that have joined the KCUS over the past year, a number of which once worked together during their "younger years" at the old Research-Cottrell in the 1980s. We believe that the talent and experience of our team cannot be matched by any of our competitors in the U.S., and that our early successes in the marketplace will lead to many more in the future.

Over the past year we have also stressed interfacing not only with KC in Seoul, but also with our sister companies Nol-Tec in the U.S. and Italy, Lodge Cottrell Ltd. in the U.K. and the rest of the KCGH network of APC companies. We believe that good communication and mutual support makes us all stronger. Towards this end, Wayne Navickas (V.P. Pre-contract) and Chris Roglieri (Manager of Engineering) travelled to Seoul in October to participate in the KCGH Global APC network meetings. Wayne and Chris enjoye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many people and to visit KCMS and several jobsites as well.

We look forward to the coming years of working together with the KCGH network of companies to achieve good growth and continuing success.

A FOCUSED ENVIRONMENTAL SPECIALIST COMPANY
GROWING TOGETHER WITH THE GREEN ENERGY INDUSTRY

Our company thinks the customer with first priority. Our company thinks you most the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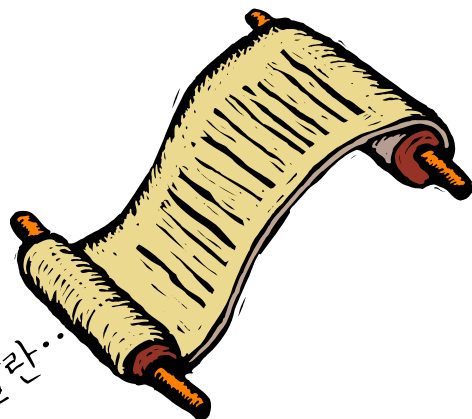
KC	코	트	렐	창	립	32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33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34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35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36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37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38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39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40	주	년
KC	코	트	렐	창	립	41	주	년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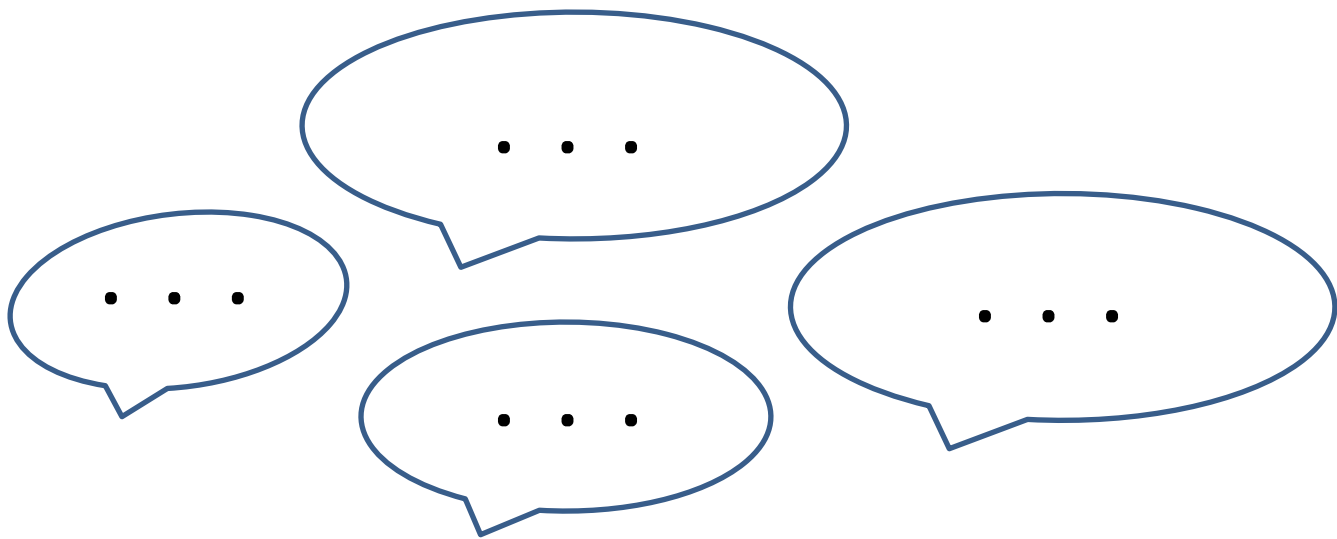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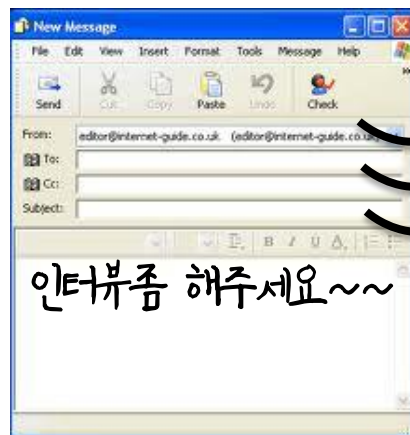
주년 특집 - KC 39 를 찾아라



KC가 39주년이지?
39살 된 직원 다 찾아봐



이태훈... 하도은... 박노현... 장준상... 심명섭... 마니말란...



경영의 전당

짱!



제 목	회신: 안녕하세요 KC뉴스레터 편집팀입니다.	편지 종류	일반 편지
중요도	보통	보낸 날짜	11/12/2012 4:53:06 PM
보낸 사람	심명섭	받는 사람	하복근

회신입니다.

~. KC코트렐과 생일이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 생일은 1월 22일 인데요..어디서 잘못 입력이 됐는지??

~.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KC코트렐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본인의 목표는

요즘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아직 우리 회사 이름을 잘 알지 못하더라구요.
두중이나 현대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글로벌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겠지요. 내 목표는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 지금동안 회사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5,6년 전에 회사 창립 기념 및 노조 창립 기념을 맞아 전 사원이 금강산으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파란색 점퍼를 하나씩 선물 받았는데 모두 입고 금강산에 오르니 금강산에 스머프 출현했다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올 초 발전민수 사업부 워크숍을 베트남에서 했어요.
역시 코트렐은 스케일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많은 답변인 만큼, 금일 중으로 회신이 없으시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0*
정말 찾아 오실 건가요? 난 지금 사우디에 출장 중 이거든요..^^
수고 하세요...

KC

39

사우디 출장 중인 심명섭 과장 - 발전민수사업부 기술팀

Q KC코트렐과 생일이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A 내 생일은 1월 22일 인데요..어디서 잘못 입력이 됐는지??

Q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KC코트렐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본인의 목표는

A 요즘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아직 우리 회사 이름을 잘 알지 못하더라구요..

두산중공업이나 현대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글로벌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겠지요. 내 목표는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Q 회사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A 5,6년 전에 회사 창립 기념 및 노조 창립 기념을 맞아 전 사원이 금강산으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파란색 점퍼를 하나씩 선물 받았는데 모두 입고 금강산에 오르니 금강산에 스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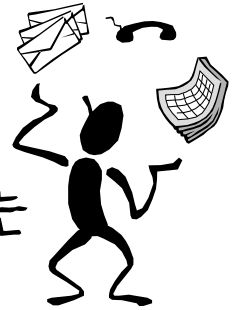
출현했다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올 초 발전민수 사업부 워크숍을 베트남에서 했어요.

역시 코트렐은 스케일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숫자39를 몽땅 다 찾아
집진기 39톤짜리 없어?

집진기는 88톤짜리가 현존하는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39년에 머했어?

.. 회사는 1974년 설립되었습니다

93년도엔



경영의 전당

Year
1989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HDI) Inc. (Seoul)
1990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1991 Daewoo Heavy Industries Co., Ltd.
1992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3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4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5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6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7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8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1999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0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1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2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3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4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5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6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7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8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09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0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1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2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3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4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5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6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7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8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9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20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21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22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KC

39

1993 - 제1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귀사의 주요 실적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983년 보령화력 발전소 1,2호기 전기집진기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 1990~1992년 사이에는 대만 전력의 Talin&Hsinta와 Shen-Ao 화력발전소의 전기집진기, 공사, ▲ 1993년 제1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환경처&조선일보 공동 제정), ▲ 1996년 당진화력 발전소 배연탈황 설비공사, ▲ 1998년 신 일

(첨 부2)

역대 환경대상 수상자 및 시상금 지원현황

구 분	부 문	수상자	시상금 지원
제 1 회 (1993)	푸른하늘대상	제일합섬(주) 경산공장	-
	맑은물대상	육군 제7789부대	
	환경 과학기술 대상	한국코트렐(주)	
	환경운동대상	포항제철서국민학교	
	자원재활용대상	상주시 새마을부녀회	
	푸른하늘대상	고령화력발전소(주)	

1993 -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된 KC코트렐

매일경제신문

사 회 2

1993년 8월 11일 (수요일)

【26】

산업현장 감전事故 잇따라

습한 날씨에 예방조치도 미 지난달 7名 목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매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습한 날씨와 함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淡薄해지면서, 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감전사고는 총 12건에 달하며, 그중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환경시설업(環境施設業)은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해외진출(海外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업은, 국내와 다른 안전기준과 작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습한 날씨와 함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淡薄해지면서, 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환경시설업(環境施設業)은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해외진출(海外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업은, 국내와 다른 안전기준과 작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습한 날씨와 함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淡薄해지면서, 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環境시설업 海外진출 활기

내년부터 해외건설업 등록대상 포함

환경시설업(環境施設業)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海外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업은, 국내와 다른 안전기준과 작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습한 날씨와 함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淡薄해지면서, 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환경시설업(環境施設業)은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해외진출(海外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업은, 국내와 다른 안전기준과 작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습한 날씨와 함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淡薄해지면서, 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보다 활성화된 환경오염방
지 시설 업의 해외진출 뉴스소
식 그리고 소개된 한국코트렐

텍스트 보기

원문 한글번역

環境시설업 海外진출 활기

매일경제 11993.08.11 기사(뉴스)

環境시설업 海外진출 활기

내년부터 해외건설업 등록대상 포함

내년 1월부터 국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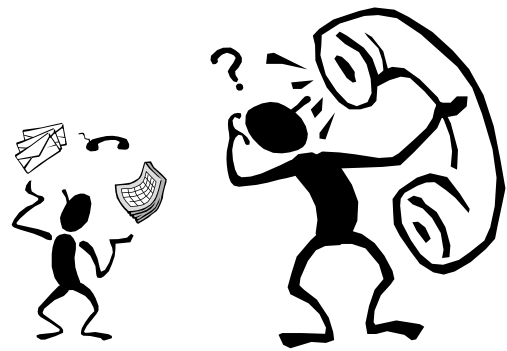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이 내년 1월부터 해외건설업 등록대상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업체들이 잇따라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

이는 방지시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송금 및 현지 금융기관의 자금이동이 가능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국내 방지시설업체는 6백50개로 지난 한해 동안 공사실적은 8천7백억원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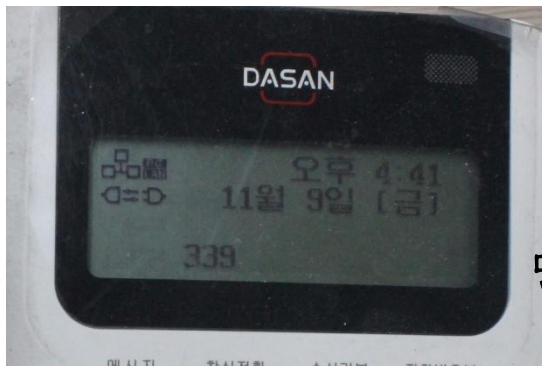
또 해외공사실적을 보면 한국코트렐이 대만에서 수주한 2천만달러 규모의 집진시설 등 6개 회사가 모두 3천1백16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현재 국제환경시장 규모는 3천억달러 규모로, 금세기 말에는 6천억달러로 2배 신장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 **KC 39** 그 주인공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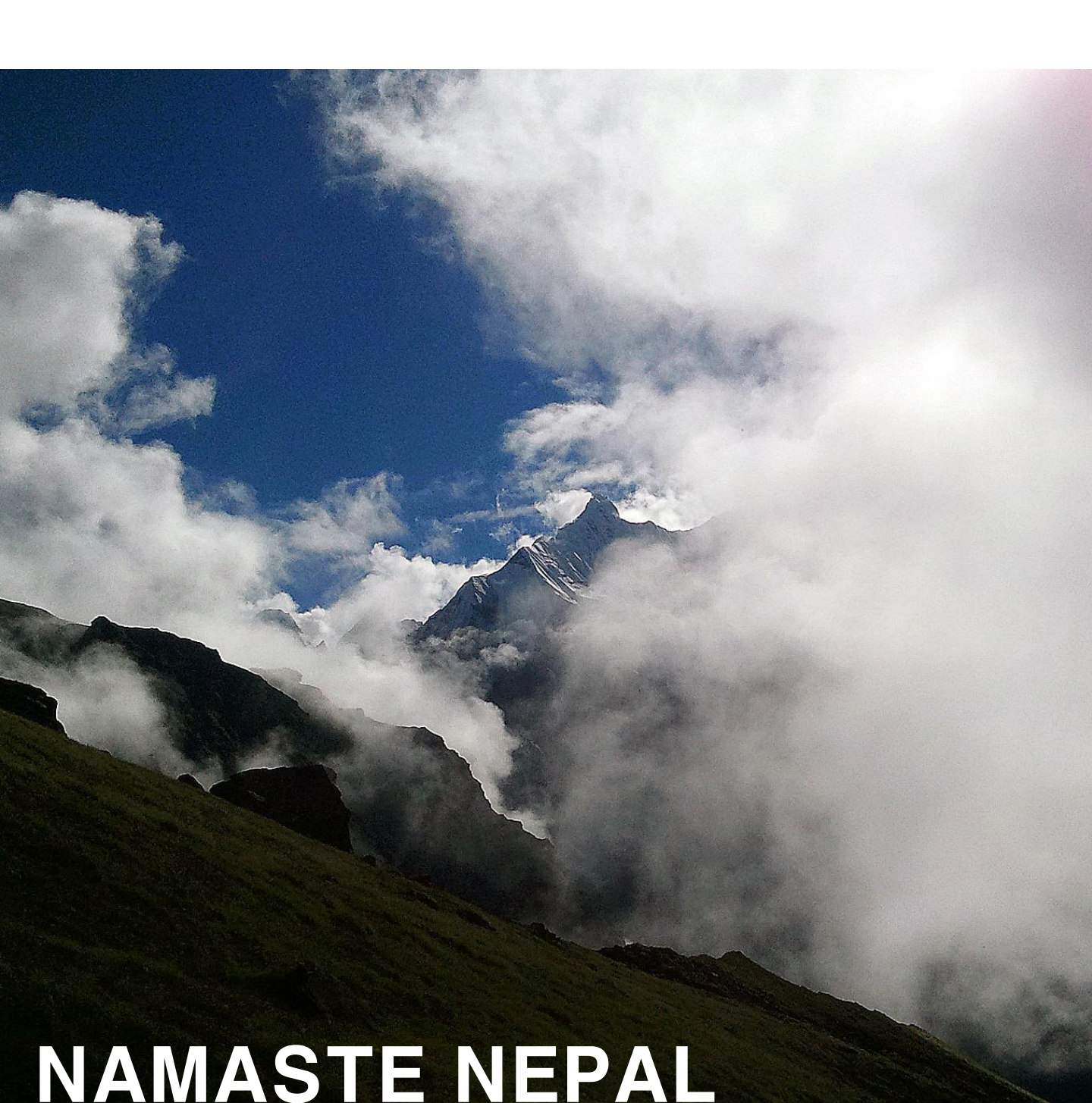
명예의 전당



339직통번호를 갖고 있는 기술연구소 - 권기남 과장

많이 눌러주세요 3 **39** ~

바쁜 업무에도 많은 협조 주신 KC **39** 명예 분들에게 감사~



NAMASTE NEPAL

HIMALAYA TREKKING

KC COTTRELL

Special Edition #1
TELL US YOUR STORY



나는 산을 싫어했다. 하지만, 산은 그런 나조차 가슴에 품었다

우연히 KBS에서 “이카로스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는 히말라야를 가슴에 품게 되었다. 장엄한 자연경관과 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은 내 자신을 정화시켜 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물론 다큐멘터리처럼 패러글라이딩로 히말라야를 횡단할 수 없지만, 거대한 자연의 품에 안겨보고 싶어 나는 그래서 네팔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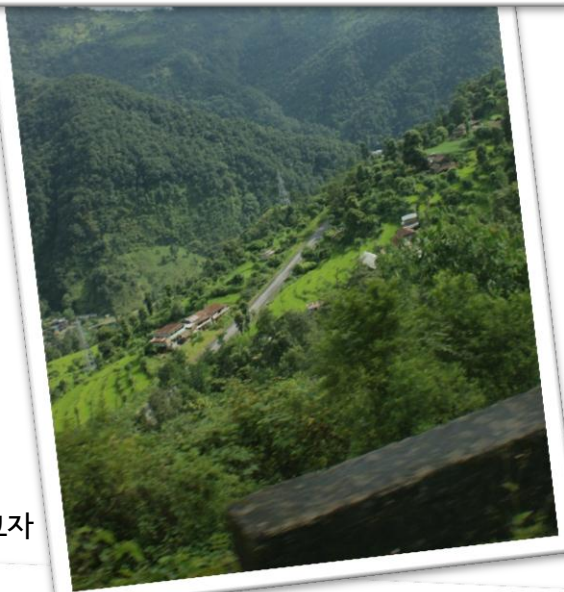
1 싱가포르 공항에서 카트만두 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6시간조차도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카트만두! 카트만두가 어떠한고 물으신다면 딱 한마디. 숨 쉬기 힘들만큼의 매연. 현지인들조차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로 카트만두의 매연은 상상 그 이상이다.

하지만,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거리와 지저분함 속에서 만나는 순박함은 매연조차 향기롭게 만들었다. 네팔, 이제 막 개발이라는 이름에 어색하게 적응해가고 있는 이 곳에서 깨끗함을 바라는 건 오히려 나의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2 사실 이번 여행은 별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공정 여행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본적인 제품외에는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래킹을 위한 퍼밋과 팀에서부터 지도와 먹을 것 등 모든 것들을 네팔에서 준비하였다. 영어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소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어가 있기 때문이다.

공항 파업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탈 상황도 아니었던 나는 현지 여행사의 중개로 택시를 타기로 하였다. 엄청 좋은 차라고 자랑을 하기에 기대를 하고 차를 맞이한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포!니! 정확히 포니는 아니지만 딱 우리나라 포니만큼 좋은 차였다. 지면의 상태를 온몸으로 느끼며 7시간 동안 포카라를 향해 열심히 달렸다. 참으로 히말라야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트래킹 시작도 전에 천근만근 축 늘어진 몸을 끌고 호텔에 도착하고 눈을 떠 부리나케 준비를 하고 네팔인, 그네들의 삶을 잠시나마 엿보고자 나는 나야폴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드디어 시작된 트래킹, 우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태양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 덕분에 내 얼굴과 몸에선 땀인지 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방울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트래킹 기간 중 가장 기나긴 날이었던 첫 날은 저녁 8시까지 계속 걸었다.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가는데도 산은 참 어려웠다. 트래킹을 하면서 ‘아~딱 옷 2벌만 가지고 오고 다 빼고 왔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행군도 아니고 너무 짐을 많이 썼다. 휴...쉬 때 마다 내 배낭을 보면 정말 한 숨 밖에 안 나왔다.

그래도 ‘둘째 날은 그나마 좀 더 낫겠지’라는 내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촌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 계단. 반대편에 내려온 것보다 두 배 많은 계단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산 밑으로 내려가는 수 많은 계단을 걸으면서 절대 편하지 않았다. 전날 저녁 숙소에서 만난 하산하는 친구가 ‘오늘 한 건 아무 것도 아닌데?’라고 했던 말이 농담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는 진실했다.

해발 3000m에 있는 히말라야까지는 계단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유명 코스는 지루하고 힘들다. 셀 수 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고 있자면 ‘아~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그냥 휴양지 가서 두 다리 쪽 뻗고 쉬면서 스킨 스쿠버나 할 걸.’ 하는 생각이 올라가는 계단보다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산행 중에 만나는 네팔인, 롯지(산 속에 있는 숙소)로 음식과 각종 재료를 나르는 네팔인들을 보면 슬리퍼를 신고 어찌나 그리 편하게 다니는지. 하다 못해 초등학생들도 그 더운 날씨에 니트까지 입고 장난을 치며 산을 탄다.



네팔인들은 비 오듯 땀 흘리며 곧 쓰러질 것 같은 내 모습이 재미있나 보다.

오기 하나로 셋째 날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향했다. 사실 히말라야(약 3,000m)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4,130m)로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것은 고산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 권하지 않는 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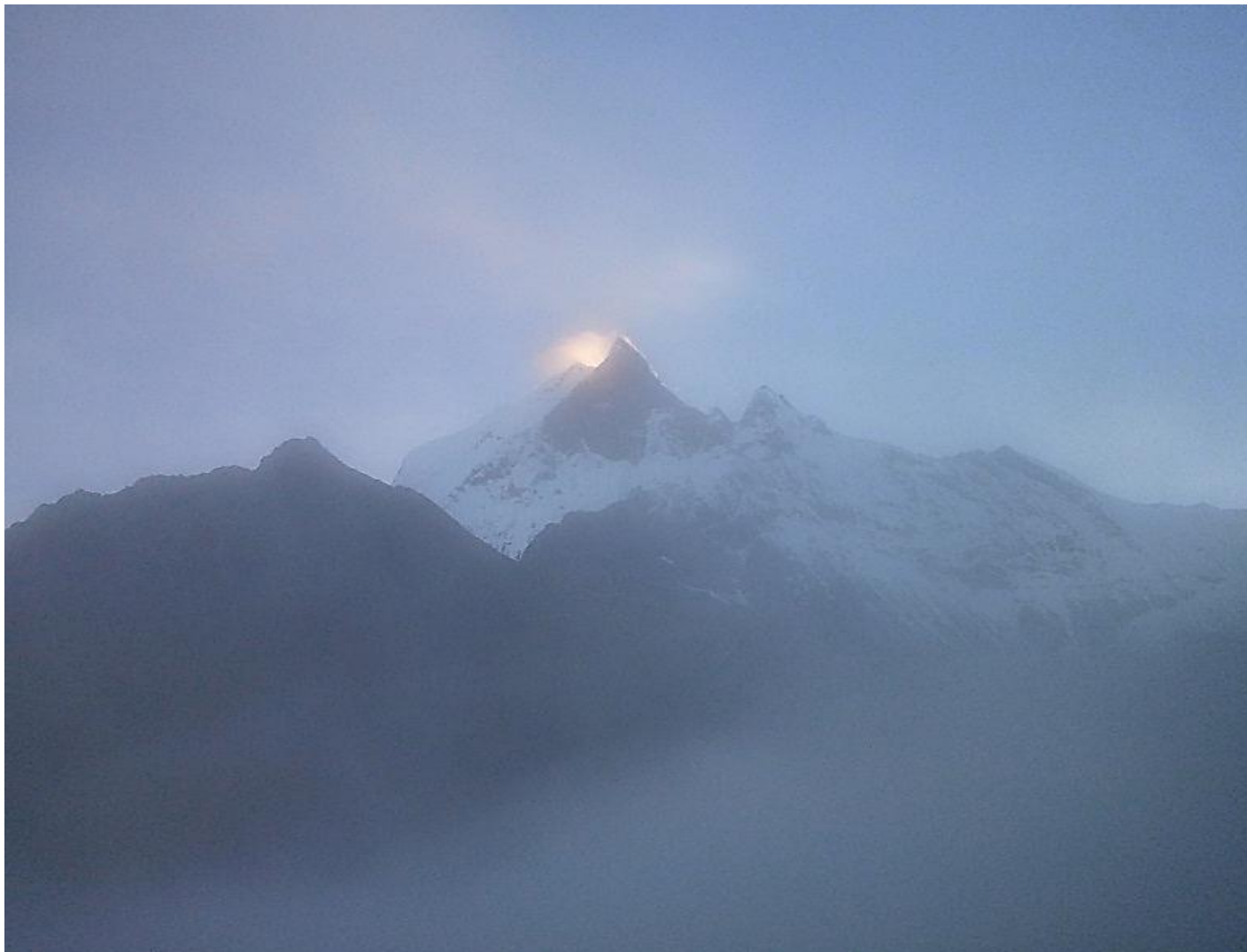
4

하지만, 히말라야 산맥의 장엄한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내 발이 스스로 베이스캠프를 향해
이끌고 간다. 단지 몸이 가는 데로 갈 뿐..
장엄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주변 경관에
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기에 나는 고산증을 느끼
지 못했다.

**압도당할 만큼, 숨 막히는 광경,
히말라야 산들을 본 순간 그 의미
를 알게 되었다.**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도착.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네팔인들의 신성스러운 봉우리, 마차푸차레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나푸르나 봉이 바로 나의 앞과
뒤를 지켜주었다. 사람이 정말 놀라거나 기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했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내 눈 앞에 펼쳐진 자
연의 위대함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가 없다. 그냥
“와” 라는 외마디 외침 그 것뿐이었다. 고산증으로 잠
을 쉬 잘 수 없었지만, 그 마저도 나에게겐 내일을 위한
선물로 느껴졌다.





개그콘서트 달인은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상상할 수 도 없다. 나와 함께 일출을 본 스페인 친구는 옆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산은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품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을 하루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운인 것인가. 그 고귀한 자태에 누구도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신성한 기운으로 떠오르는 마차푸차레의 태양

신비로움을 위한 연출인 듯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그리고 그 영롱한 빛에 반짝이는 안나푸르나

이 순간만은 시간이 멈추길 바랬다.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지금의 모습을
몇 시간, 몇 일 동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길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인
내 두 눈으로 찍은 풍경을
가장 좋은 인화지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두었다.





포카라. 트래킹의 여독과 안나푸르나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도시이다.

사랑곳의 패러글라이딩, 근교 도시 바이크 투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다음의 나를 위해 양보한 채, 나는 고즈넉한 폐와호에 앉아 평온함이 무엇인가 새삼 알게 되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비쳐지는 이름 모를 봉우리들,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조각배.
 실 틈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과 한 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소음들이 그 순간에는 내 기억 속
 저편에만 어렴풋이 존재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불과했다.
 거룩한 자연의 품에 안겨 잠시나마 성스러운 고요함을 느끼며
 나는 그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나의 여행을 정리할 수 있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떠난 네팔.
거대한 자연의 멋스러움을 만나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자연은 그런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멋진 선물을 선사해 주었다.
트래킹 내내 투덜거리며 불평을 하는 나에게
이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일출을 선사해 주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다.
나는 히말라야 산을 만나며
아직 화창한 나의 청춘을 만났으며,
이제는 히말라야가 아닌 나만의 산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 이 상 한



[TALK #1] 이달우 회장 연재칼럼

이달우 회장이 대형 집진장치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2년. 미국에서 수입한 2기의 전기집진기를 마산화력발전소에 시공하면서다. 이 회장은 이때 전기집진기 내부를 속속들이 이해하면서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뒤 전기집진기를 만드는 일에 일로매진(一路邁進)했다. 드디어 1968년, 이 회장 손으로 최초의 국산 전기집진기를 만들어 군산화력발전소에 납품했다. 이 시설은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다. 그 뒤 이 회장은 1973년 한국코트렐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산업에 뛰어들었다.

KC코트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현재 집진설비로 KC코트렐의 국내입지는 굳건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외점령을 꿈꾸는 시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고 오늘날의 책은 동서고금을 따라갈 수 없다. 하여,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이달우 회장의 연재칼럼을 기획했다.



이 달 우

1930 출생 / 1948 서울대 전기공학과 입학
1953 서울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입학
1952. 7-1961. 4 조선전업(한국전력전신) 근무
1961. 6-1963. 11 미국 벡텔, 리서치코트렐 근무
1964. 2-1973. 4 대야산업건설(주) 대표이사
1973. 11-1999. 12 한국코트렐(주) 대표이사
2000. 1-현재 한국코트렐(주) 회장

Q 회장님의 열정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A 시종일관한 목표를 향한 집중력

Q 가장 기뻐던 한 순간이 있다면

A 20여 년 전세사리를 벗어나 KC본사 사옥을 신축 완성하였을 때

Q 우리 회사에게 바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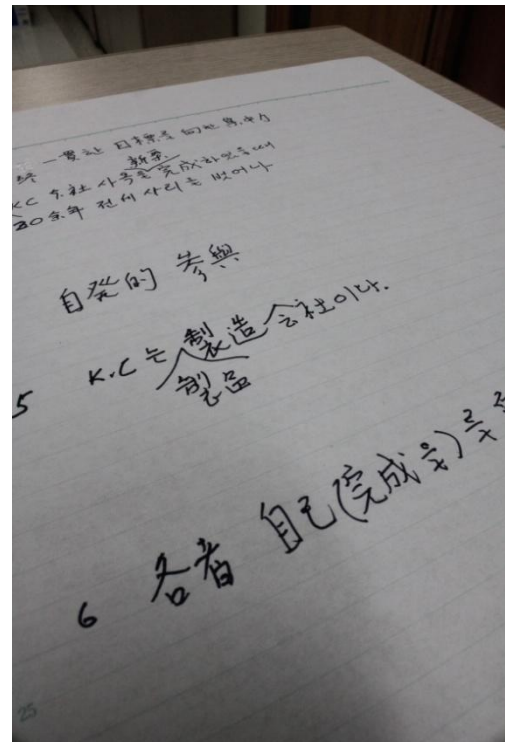
A 자발적 참여

Q KC COTTRELL은 _____다

A KC는 제품제조회사이다.

Q 이달의 한마디

A 각자 자기(완성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別れ際にさよならなんて悲しいこと云うなよ...」

(와카레기와니 사요나라난떼 카나시이고또 이우나요)



오늘의 표현

「別れ際にさよならなんて悲しいこと云うなよ」

→ “헤어질 때 안녕 따위, 슬픈 얘기 하지마.”

→ 와카레기와니 사요나라난떼 카나시이고또 이우나요



핵심어구

1) 別れ際 (わかれぎわ)

別れる (わかれる) → 헤어지다

2) さよならなんて

さよなら → 헤어질때 인사말 '안녕'

なんて → '~따위' 보잘것 없는 것을 표현할때 씁니다~

3) 悲しいこと (かなしいこと)

悲しい (かなしい) → 슬픈

*こと → 형용사 뒤에 쓰이면 하나의 전체적인 명사로 표현됨. 여기서는 '슬픈 말', '얘기'로 해석!

4) 云うなよ (いうなよ)

云う (いう) → 말하다

*동사에 「な」가 붙으면 하지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미드 속 영어표현 모음

I stick by the rules

지킬건 지킨다

You are so square

넌 너무 고지식해

Nobody knows

별들에게 물어봐

Show us what you can do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That's such a lame excuse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You deserve 넌 그래도 싸

I'm discouraged 기죽어

Don't be prejudiced 그런 편견을 버려

Don't underestimate me 날 몰로 보지 마

Whose side are you on 누구편이니?

Let's wait and see 두고 보자

Stick to the topic, please.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라

Please hear me out

끝까지 들어 봐

You have some nerve.


너 간 크다

Have a sound dream 잘 자


What a relief! 다행이네

Don't look down. 무시하지마

Don't be so nosy 묻지마 다쳐



사랑합니다
KC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중한 기사를 모집합니다

자신의 소신의 글, 공감의 글,

여러분의 생각을

KC뉴스레터에 올려주세요

☎ 02-320-6351

Editing Team

제	철	지	원	팀	이	상	민	팀	장
해	외	사	업	부	김	규	백	사	원
		기	획	팀	이	제	연	대	리
		사	업	부	정	채	수	선	임
		관	리	원	최	정	식	과	장
		관	리	팀	여	문	택	상	무
재	무	기	리	팀	홍	성	관	차	장
		관	리	팀	서	주	회	대	리
		관	리	팀	박	세	라	주	부
기	술	지	원	팀	홍	정	철	부	사
배	트	남	지	사	염	은	향	사	원
		업	무	팀	김	정	회	팀	장
		관	리	팀	조	동	화	법	인
		업	무	팀	정	유	주	사	원
		너	지	아	이	은	순	차	장
	에	재	원	팀	배	유	미	사	원
		구	경	팀	이	수	정	과	장
전	략	지	매	팀	정	강	호	대	리
지	식	경	영	팀	하	회	정	사	원
					이	상	한	사	원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KC 뉴스레터